

자유전공학부생이여,  
국제법을 득템하라!

박 기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강 목차

- 박기갑 교수 소개
- 들어가면서
- 국제법이란?
- 국제법의 필요성과 유용성
- 국제법 관련 문제 예시
- **Enlarge your territory !**

# 박기갑 교수



- 전공: 국제법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석사
-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법아카데미 diploma
- 프랑스 Paris II 대학교 법학박사 (최우수 논문상 수상)
- 전(前)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 전(前) OECD/NEA 원자력법위원회 부의장
- 전(前) IAEA 원자력손해배상법 전문가
- 현(現) UN 국제법위원회 위원
- 현(現)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자문위원회 위원장
- ICAO, UNEP, 남극당사국회의 등 참가





들어가면서

학문은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경험의 산물이고, 그것을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

# 19세기 말 조선의 강제 개항

- 1873년 11월 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전면에 등장하자 개화파가 득세하였다. 그러나 국론 분열과 내정개혁의 중단이 겹쳤고, 문호개방은 열강의 세력경쟁을 몰고와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 1875년 8월 일본 군함 운양호가 조선의 영해와 영토를 침입하자 이에 조선 수병은 총격을 가하였다. 그러자 운양호는 영종도에 불법포격을 가했다. 위세에 눌린 조선은 1876년 2월 27일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규)을 체결했다. 전문과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은 조선의 자주와 평등을 첫머리에 내걸었지만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함포 외교에 굴복하여 1854년 개국한 사례를 그대로 조선에 적용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에서 승리하면서 한반도의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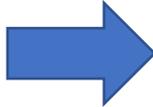
# 메이지(明治) 유신 전후 일본과 국제법

檜恒清治(히가키 세지)는 일본 19세기 중반 지식인이다. 그는 당시 세상을 앞서 살아간다는 龍馬(료마, 1836-1867)를 흠모하여 만나보길 간절히 바랐다. 그리하여 히가키는 에도(江戸, 지금의 도쿄)에서 료마를 만날 수 있었다. 료마는 히가키가 자랑스럽게 차고 있던 긴 칼을 힐끗 본 뒤,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다. 칼이 아무리 길다 하여도 도움도 되지 않으며, 훌륭 하지도 않다”라 말하며 자신의 단도(短刀, 짧은 칼)를 꺼내 보였다.

히가키는 옳다고 생각하여 후일 자신의 긴 칼을 버리고 단도를 구입하여 후일 료마에게 보 이자 “나는 이것이요”하고 료마는 품안에서 권총을 꺼내 기세 좋게 한 발 발사하였다.

히가키는 그 놀라운 물건의 위력에 감탄하여 고심한 끝에 권총을 수중에 넣어 세 번째로 료 마를 만났다. 그러자 료마는 “나에게 있어 가장 위력있는 것은 바로 이거요”라고 말하면서 **국제법(만국공법)**을 꺼내 보였다. (일본 와세다 법학부 교수 시마다 유키오 저, 국제법)

# 2021년 대한민국의 현주소

- 총인구: 2021년 5,183만명  2067년 3,929만명으로 추산  
\*북한:2,567만명(2017년)
- 영토 넓이: 100,210km<sup>2</sup> (전세계 107위 정도) \*북한:120,540km<sup>2</sup>
- 정치체제: 민주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
- 기대수명: 82.7세(2020년 기준) \*OECD 평균 기대수명: 80.7세
- 일인당 국민소득: 약 31,000달러(2020년)
- 국민총소득(GNI): 전세계 상위 10위권 수준
- 국내체류 외국인 숫자: 252만명 정도(2019년, 총인구의 4.9%)
- **대한민국은 중간 규모인 국가이다?** (Mauro F.Guillén, 『The Future of Everything』 (한글번역 제목: 『2030 축의 전환』(2020))

# 국제법이란?

# 국제법의 개념

- 국제법 명칭: Law of Nations → (public) International Law
- 국제법은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에 적용되며 그를 규율하는 법체제이다.
  - 전통국제법: 국제법은 독립된 국가들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제, 서구 제국주의의 대외정책(영토확장, 식민주의)의 정당화 수단
  - 현대국제법: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 등의 국제법의 주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제, 주권평등원칙하에 약소국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
-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sources):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 국제법에서 배우는 내용들

- 국제법의 연원(sources)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국제법의 주체: 국가, 국제기구, 개인 등
- 관할권 (jurisdiction), 특히 특권과 면제
- 국가책임(국제책임)
- 외교영사관계
- 조약법
- 국제기구법
- 국제해양법
- 국제항공우주법
- 국제환경법
- 국제경제법 (EU법 포함)
- 국제투자법
- 국제형사법
-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
- 국제인도법(IHL)
- 무력충돌법 (전쟁법)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국제법과 구별되는 법분야

- 국제사법(섭외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개인간 외국적 요소가 개입된 민사·상사관계(계약, 상속, 결혼과 이혼, 사고 등)를 준거법 설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국내법을 말하며, 법률충돌, 관할권 충돌, 국적 충돌 문제 등을 다룬다.
- 국제거래법: 개인, 특히 국적을 달리하는 회사간의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는 상관습에 유래하는 법체계
- 국제관계학, 국제정치학

# 일반인들에게 알쏭달쏭한 국제법

- A국 국적의 외교관이 B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처벌 받는다/안 받는다?
- 주권면제 – 2021년 1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 항공기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면 주권 침해인데, 인공위성에서 촬영하면?
-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천지 경계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재설정 가능할까?
- 이어도는 국제법상 섬(island)인가?
- '성소수자' 보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나?

#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 예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the Korean Red Cross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The page title is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안내'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oot Court Competition Announcement). The main content area contains the following text: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대학(원)생들이 주어지는 가상의 국제인도법 관련 사건을 분석하여 변론하고 우승자를 가리는 모의재판 대회로, 우승팀에게는 ICRC와 홍콩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의재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19년 제11회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까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공동주최했으나 2020년부터 제12회부터 행사 관련 모든 업무가 ICRC로 행사가 이관되었습니다.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enu titled '행사 및 세미나' (Events and Seminars) with the following items:

- 국제인도법 계절코스
- 국제인도법 논문지원사업
-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 국제인도법 세미나
-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 국제인도법 시네마토크

#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안내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fo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ilm Review Essay Competition. At the top left is the logo for the Korean Red Cros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Research Center.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소개', '행사 및 세미나', '인도법논총', and '자료실 및 공지사항'. The main header features the text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sidebar on the left lists various activities, with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yellow banner for the '제1회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with a '신청하기' button. Below the banner, the winning film is listed as '아메리칸 스나이퍼(American Sniper, 2014)' and the eligible participants are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2년제 대학이상 대학(원)생(휴학생포함)'.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HOME 대한적십자사 바로가기

소개 행사 및 세미나 인도법논총 자료실 및 공지사항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행사 및 세미나

- 국제인도법 개황코스
- 국제인도법 논문지원사업
- 국제인도법 유죄재판 공판대회
- 국제인도법 세미나
-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 국제인도법 시네마테크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Home > 행사 및 세미나 >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제1회  
국제인도법  
영화감상문  
공모전

신청하기

감상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American Sniper, 2014)

참가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 2년제 대학이상 대학(원)생(휴학생포함)



# 국제법의 필요성과 유용성

# 자유전공학부생에게 있어서 국제법은?

- 4년간의 학부
- 이후 진로? 취업, 학업(유학, 대학원 진학), 로스쿨 등등
-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진로
  - 로펌 또는 기업체 취직
  - 사법부 - 판사
  - 검찰
  - 주요 부처 공무원
  - 국제기구 직원
- 이제는 전문화(專門化) 내지 전문직역(專門職域)시대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학부에서 국제법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말하는 국제법의 필요성과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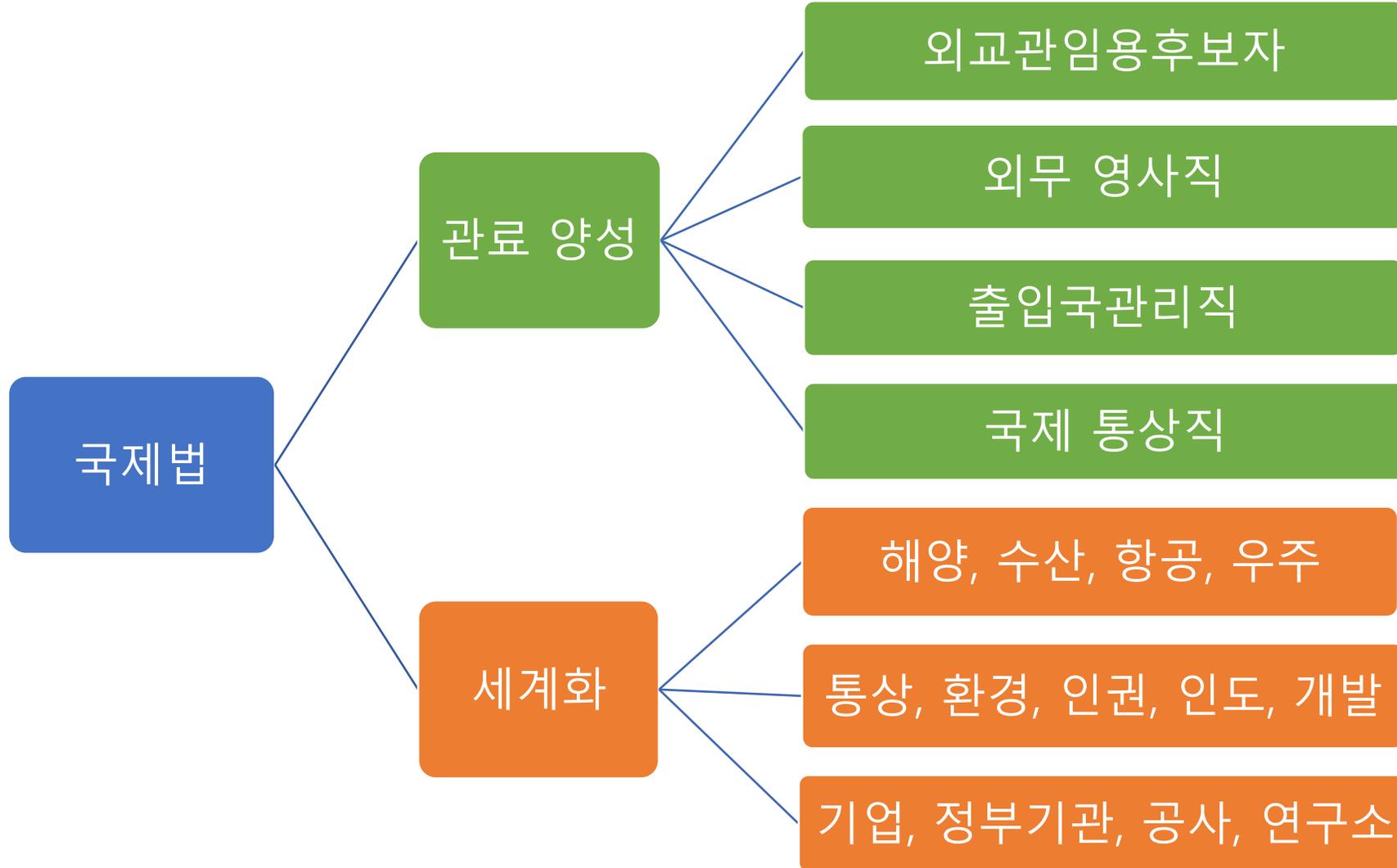
## < 도움을 주신 분들 >

- 정경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류선형 교수(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교 교수)
- 오시진 교수(삼육대학교 스미스 학부 교수)
- 김현정 교수(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임예준 교수(고려대학교 공공사회·통일외교학부 교수)
- 고은수 교수(해군사관학교 교수)

# 정경수 교수의 설명(1)

- 세계화 시대 '법과 국제화' 교육의 필수 과목
  - 해방 후 4년제 종합 대학 법과대학 8대 과목
    - 헌법, 국제법, 행정법, 형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노동법
  - 세계화 시대 통합 교육의 구성 요소
    - 해양·수산, 항공·우주 등 (교통, 자원, 과학, 군사)
    - 자유무역, 전지구환경보호, 보편적 인권 실현, 인도적 지원 등
    - 국제관계, 국제경제, 국제법 +  $\alpha$  (언어, 윤리, 철학 등)
- 국제법 교육
  - 이론과 실무 → 제도 중심
  - 분과 내 (intra-discipline)와 분과 간(inter-discipline)
  - 국제법 > 법학 > 사회과학 > 과학/학문

# 정경수(2) 국제법 전문가의 수요와 진로



## 정경수(3) 국가공무원 시험(5급) -선택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20명)	시 험 과 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 (예시)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행정직 (일반행정)	전국 : 120명 지역구분 : 28명 * 지역별 구분모집표 참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필수(4)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 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전 부처
행정직 (법무행정)	3명	“	필수(4)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공정거래 위원회, 법제처, 그 밖의 수요부처

# 정경수(4) 국가공무원 시험(5급) - 필수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총 320명)	시 험 과 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 (예시)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	
행정직 (국제통상)	8명	“	필수(4) : 국제법, 국제경제학, 행정법, 영어 선택(1) : 경제학, 무역학, 재정학, 경영학, 국제정치학, 행정학,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산업통상 자원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3명	“	필수(4) : 형사소송법, 국제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민법 (친족상속법 제외),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법무부

# 정경수(5) 국가공무원 시험(외교관 임용 후보자) - 필수과목

선발분야	선발예정인원 (총 50명)	시 험 과 목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논문형 필기)	
		필 수	선택 또는 지정과목	전공평가	통합논술
일 반 외 교	46명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과목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학제통합 논술시험 I, 학제통합 논술시험 II

# 정경수(6) 국가공무원 시험(7/9급) - 필수/선택과목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755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7과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예시)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25명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행정법, <b>국제법</b> , 형사소송법	법무부
외무영사직 (외무영사)	일반 : 37명 장애인 : 3명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헌법, 국제정치학, <b>국제법</b> 선택(1) : 독일,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외교부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총 4,985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주요 근무 예정부처(예시)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	일반 : 213명 저소득 : 6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b>국제법개론</b>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법무부

## 정경수(7) 국제법 교육의 방향과 특성은

수험 국제법학

전문가 국제법학

세계화 소양 국제법학

# 류선형 교수의 설명

-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프랑스에서 국제투자협정에 관한 박사학위를 받고 현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해외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사건서면을 작성하기 위한 조사(research)를 하면서 절실히 느낀 점은 국제법의 다양한 영역은 결국은 국제법 일반이론 및 조약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그 근간을 철저히 습득하지 않으면 결국 각각의 분야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실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특히 한국은 위안부, 남북한, 독도문제 등 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한 국제투자소송 등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상황에 기인하여 국제법적 사안에 더욱 민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법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키워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앞으로 마련된다면, 향후 여러 국제기구나 기관에 한국 출신의 뛰어난 국제법 전문가들이 자리잡게 되어 우리나라의 입지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시진 교수의 설명

- 국제법의 실용성: 국가의 이익에 도움 - 국제법은 국가들의 행위의 기준이 된다. 국제법과 상충되는 행위를 하는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해당 행위가 발생시킬 국제법적 효과를 검토한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입장 표명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다.
- 국제법은 위와 같은 대외정책의 수단만이 아니다. 국제법은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理想)이 있다. 국제법이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평화의 유지, 인권의 보호와 증진, 환경의 보호, 협력 증진과 같은 가치를 들 수 있다.

# 김현정 교수의 설명

- 국제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대한민국 = 국익 추구 + 국제사회(국제공동체)의 일원
  - 중견국 외교 = "외교는 힘이 아닌 논리"(前 국립외교원장)
  - 세계 4강에 둘러싸인 지리적 위치 ⇒ 주권 평등 중요
  - 세계 10위 경제규모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
  - 전 지구적, 초국경적 문제의 해결 필요
- 커리어 개발
  - 기본소양으로서 국제법
  - 연구자의 길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 준비

# 임예준 교수의 설명

- 지식인으로서의 국제법의 필요성과 유용성
  -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과 틀
  - 이웃을 이해하는 시각과 틀
  - 북한 및 한반도 문제를 국제법 질서 내에서 이해하는 시각과 틀
-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국제법의 필요성과 유용성
  - 관련 전공: 정치외교학, 국제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 관련 진로: 외교관, 통상·협상 업무, 국제기구 직원 등
  - 국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조약법,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및 국가책임,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등은 실무재판에서도 다루어진다.

# 고은수 교수의 설명

- 국제법 가치를 중시하고 의존할 때 대외적인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타국과의 분쟁시 국제법은 주장에 대한 유용한 논거로 사용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안정적 국제질서의 확보가 우선적이다. 대외관계에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법은 교섭의 수단이 되며, 타국에 설득력을 확보하게 한다.
- 한국은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이므로,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위해서는 국제법에 관한 탄탄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지정학적인 한국의 위치로 볼 때 군사력, 경제력으로 강대국을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이들을 상대로 외교를 하고,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 규범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다. -> 이것이 바로 국제법이며, 한국과 같은 강소국은 더욱 그 중요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예를 들어, WTO 협정과 같은 조약이 있었기에, 한국은 군사력, 경제력이 앞선 국가들을 상대로 국제법적 논리로서 승소를 거둘 수 있었다. ex)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수산물 수입 금지에 관한 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https://youtu.be/Ut8T5g4BB7E> (10분 가량 소요)

# 국제법 관련 문제 예시

## 중국발 미세먼지 주요 유입 경로

몽골

**2** 북서풍 타고  
국내 유입

**‘ㅅ’자형**

**1** 남서풍 타고 베이징,  
텐진, 허베이 등 거쳐  
오염물질 만주로 이동

베이징  
텐진

한국

중국

자료: 국립환경과학원

# 국제법 관련 사건: 한일 관계 경색(1)

-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 합의의사록 제2조 (g)항: 위 협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 국제법 관련 사건: 한일 관계 경색(2)

-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소송 제기 - 법원행정처가 '헤이그송달협약'(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일본 외무성에 소장 송달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2019년 1월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송달을 거부함.
- 2019년 3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5월9일 효력 발생
- 2019년 5월 1심 시작 - 일본 정부는 소송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 발표 -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의 주권행위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없다(국제관습법상 주권/국가면제론)"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함.

# 국제법 관련 사건: 한일 관계 경색(3)

- 2019년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 위안부 피해 소송의 첫 변론기일: 재판부는 먼저 소송 진행에 절차상 문제가 소있는지(원·피고의 자격 등)를 따진 뒤 실제 파악에 착수하기 때 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주권(국가)면제이론이 받아들여진다면 소 송은 각하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한 위안소 운영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는 심리조차 하지 못하게 됨.
- 2020년 1월 8일 재판부는 “반인도적 행위에까지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하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하여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을 내림.

# 국제법 관련 사건: 한일 관계 경색(4)

- 일본 정부 및 일본 국내법원의 입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한국 국민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모두 포괄적으로**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었고, 이 협정의 체결 및 그 이행으로 포기되었거나 그 배상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 한국 정부 및 한국 국내법원의 입장: 1965년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이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Enlarge your  
territory!**

# 국내외 국제법 관련 진출가능 분야

-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국제민사, 상사, 형사사건: 섭외적 요소가 명시된 국내법률이 꽤 많음.
- 국제기구 법무실에 취직하거나, 국제재판소의 판사로 진출 (송상현, 권오곤, 박선기, 백진현, 정창호 판사 등)
- 국가 대 국가 소송: 국제사법재판소(ICJ),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중재재판(arbitration) 등
- 언어 구사능력, 특히 영어와 불어 습득이 전제조건임.
- 국제법 이론 중에는 특히 조약법과 국가책임법 이론이 중요함.

# 향후 국내에서의 국제법 관련 사건 추이?

- 국제인권법 관련 사건 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국민의 인권의식 신장,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총인구의 5%이상 시대)
-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대비
  - 조심스런 예상이지만 남북한 각자의 사실상의 관할권 행사 지역에서 자신의 국내법 적용 또는 한시적으로 적용될 특별법 제정 가능성
  - '전환기적 정의' 실현문제: 대한민국, 남아공, 중남미 등의 과거사 청산, 진실과 화해 운동 등에서 보듯 북한 고위층 역시 이러한 질책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임
- 국제환경법 분야: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 악화, 중국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시 한반도에의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저지대 침수 등)

# 대한민국 20대의 국제법적 당면 과제

- 여러분은 기후변화와 pandemic의 최대 피해자이면서 미래세대
-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 교수는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들로서 아래 4가지를 언급함.
  - 기후변화(global climate change)
  - 불평등
  - 환경자원의 무분별한 훼손과 관리
  - 무력충돌(전쟁) (출처: 『Comparing Human Societies』(『나와 세계』))
- 위의 중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제법
-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와 국제사회의 장래를 위한 일종의 수단 내지 방법론 - 자긍심 필요

# 국제법을 득템하면?

- 국제적 시각 ↑
- Humanity (인도주의)적 사고방식 ↑
- Opinion leader로서의 자질 향상 ↑



**감사합니다 !**